

최웅식. 2022. “나미비아와의 협상 타결에 대한 마스 독일 외무장관의 2021. 5. 28. 성명” 『인권연구』 5(1): 249-254.

Choi, Woong Shik. 2022. “Statement by Germany’s Foreign Minister Maas of 28 May 2021 on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with Namibia”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5(2): 249-254.

DOI: <http://www.doi.or.kr/10.22976/JHRS.2022.5.1.249>

[인권자료]

나미비아와의 협상 타결에 대한 마스 독일 외무장관의 2021. 5. 28. 성명*

최 웅 식**

해 제

2021년 5월 28일 독일 외무장관 하이코 마스(Heiko Maas)는 베를린에 소재한 독일 연방정부 외무부 청사 앞에 마련된 단상에서 나미비아와의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기자들 앞에 발표했다.

이 성명은 독일 연방정부가 과거 자국의 식민지였던 오늘날의 나미비아에서 저지른 만행을 제노사이드(genocide)로 공식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진한 부분은 남아 있어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다.

오늘날의 나미비아(당시 독일령 남서아프리카)는 1884년부터 1915년까지 독일의 식민지였다. 당시 독일은 헤레로(Herero)족과 나마(Nama)족이 1904년부터 1908년까지 일으킨 봉기를 무자비하게 진압했는데, 이 사건으로 8만여 명에 달하는 헤레로족(헤레로족 총인구의 80%)과 최소 1만여 명의 나마족(나마족 총인구의 50%)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된다.¹⁾

마스 외무장관은 식민통치 시기에 자행된 이 잔학행위들을 제노사이드로 공식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역사적,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 후손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조

* 이 글은 필자 개인이 번역하고 해제를 붙인 것으로 소속기관의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1) 독일 외무부의 공식 Facebook 계정 게시물(2021. 5. 18)에 부기된 배경 설명이다. URL: <https://www.facebook.com/AuswaertigesAmt/photos/3921393911291083>, 접속: 2022. 5. 18.

치로 나미비아와 피해자 후손들을 11억 유로 상당의 재건과 개발을 골자로 한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명을 발표한 다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다.

이 성명이 발표된 뒤 피해자 후손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과 평가가 나왔다.²⁾

한편 발표 당일 독일 외무부 홈페이지에는 해당 성명서 전문이 보도자료 형태로 게시됐고,³⁾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는 이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나 마스 외무장관이 당일 실제 구두로 발표한 성명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성명서와 다소 차이가 난다. 행간을 읽고 함의를 분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하는 마스 외무장관이 구두로 발표한 성명 전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과 독일어 원문⁴⁾이다.

주제어: 독일, 나미비아, 독일령 남서아프리카, 헤레로, 나마, 제노사이드, 과거사, 포스트식민주의

2) 주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홈페이지 게시물 「독일-나미비아 과거사 청산 협상 타결 관련 논평」(2021. 6. 2)에는 현지 주요 언론기사와 논평이 요약되어 있다. URL: https://overseas.mofa.go.kr/de-frankfurt-ko/brd/m_9527/view.do?seq=1223273, 접속: 2022. 5. 18.

3) “Außenminister Maas zum Abschluss der Verhandlungen mit Namibia” (독일 외무부 홈페이지 2021. 5. 28. 보도자료), URL: <https://www.auswaertiges-amt.de/de/newsroom/-/2463396>, 접속: 2022. 5. 18.; 영문 번역본은 “Foreign Minister Maas on the conclusion of negotiations with Namibia” (독일 외무부 영문 홈페이지 2021. 5. 28. 보도자료), URL: <https://www.auswaertiges-amt.de/en/newsroom/news/-/2463598>, 접속: 2022. 5. 18.

4) 마스 외무장관의 발표를 중계한 방송사 영상을 참조하여 필자가 작성했다. URL: <https://www.youtube.com/watch?v=AlkbNpQi53c>, 접속: 2022. 5. 18.

나미비아와의 협상 타결에 대한 마스 독일 외무장관의 2021. 5. 28. 성명

저는 우리와 나미비아 공통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한 시기를 어떻게 함께 다룰 것인가에 관해 마침내 나미비아 측과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루프레히트 폴렌츠와 나미비아 측 교섭상대가 5년 넘게 이어 온 협상에서 타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큰 성과입니다.

이들은 양국 정부와 의회로부터 위촉을 받아 대표로 이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미비아 측이 헤레로 공동체와 나마 공동체 대표를 교섭에 긴밀하게 관여시킨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길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날의 나미비아에서 독일의 식민시기에 벌어진 사건들, 특히 1904년부터 1908년까지 자행된 잔학행위들을 명확하게 명명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공식적으로도 이 사건들을 당시 일어났던 대로 제노사이드로 부르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의 역사적 책임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독일의 이러한 역사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미비아와 피해자 후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바입니다.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해아릴 수 없는 고통을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나미비아와 피해자 후손들을 11억 유로에 달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재건 및 개발과 관련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를 기획하고 이행하는 데 제노사이드로 피해를 입은 공동체들이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화해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독일 식민통치의 범죄들은 나미비아와의 양국 관계에 오랫동안 부담으로 작용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사에는 중지부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과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범죄들을 규명하고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가는 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진> 마스 독일 외무장관이 2021. 5. 28. 기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 하이코 마스의 Twitter 계정에 게시된 동영상(2021. 5. 28.) 화면 갈무리.
URL: <https://twitter.com/HeikoMaas/status/1398262187089608704>, 접속 2022. 5. 18.

<독일어 원문>

**Statement vom deutschen Außenminister Maas am 28. 5. 2021
zum Abschluss der Verhandlungen mit Namibia**

Ja, ich bin außerordentlich froh und auch sehr dankbar, dass es jetzt endlich gelungen ist, mit Namibia eine Einigung über einen gemeinsamen Umgang mit einem der dunkelsten Kapitel unserer gemeinsamen Geschichte zu erzielen.

Dass nach über fünf Jahren Ruprecht Polenz und sein namibischer Verhandlungspartner die Verhandlung zum Abschluss bringen konnten, ist ein großer Erfolg.

Sie haben diese Verhandlung geführt im Namen und im Auftrag unserer beiderer Regierungen und auch im Auftrag und im Namen beider Parlamente.

Es war dabei ganz entscheidend, dass Vertreter der Gemeinschaften der Herero und der Nama auf namibischer Seite in die Verhandlungen eng eingebunden worden sind.

Unser Ziel ist es, einen gemeinsamen Weg zu echter Versöhnung im Angedenken an die Opfer zu finden.

Dazu gehört, dass wir die Ereignisse der deutschen Kolonialzeit im heutigen Namibia und insbesondere die Gräueltaten aus der Zeit von 1904 bis 1908 ganz klar benennen.

Wir bezeichnen heute diese Ereignisse jetzt auch offiziell als das, was sie gewesen sind: ein Völkermord.

Wir bekennen uns damit auch zu unserer historischen Verantwortung.

Und im Lichte dieser historischen und moralischen Verantwortung Deutschlands werden wir Namibia und die Nachkommen der Opfer

um Vergebung bitten.

Als Geste der Anerkennung des unermesslichen Leids, das den Opfern zugefügt wurde, wollen wir Namibia und die Nachkommen der Opfer mit einem substanziellen Programm in Höhe von 1,1 Milliarden Euro unterstützen.

Dabei wird es ganz besonders um Wiederaufbau und Entwicklung gehen.

Bei dessen Gestaltung und der Umsetzung werden die vom Völkermord betroffenen Gemeinschaften eine ganz entscheidende Rolle einnehmen.

Klar ist auch, gelebte Versöhnung kann man nicht verordnen, aber wir können dafür arbeiten.

Die Verbrechen der deutschen Kolonialherrschaft haben die Beziehungen mit Namibia lange belastet.

Einen Schlusstrich unter die Vergangenheit kann es deshalb nicht geben.

Die Anerkennung der Schuld und unsere Bitte um Vergebung ist aber ein wichtiger Schritt, um die Verbrechen aufzuarbeiten und gemeinsam die Zukunft zu gestalten.